

지역 소식통

김제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김제시 드림스타트는 6월부터 11월까지 아동의 부모 40명을 대상으로 10명씩 4회에 걸쳐 올바른 자녀 양육을 위한 '멋진부모, 행복한 자녀' 프로그램과 가족 공예 만들기 수업을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실에서 진행한다.

이번 '멋진부모, 행복한 자녀' 프로그램은 부모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이해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인식을 통해 부모의 양육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부모 교육 후 진행된 공예 교실은 가족으로 파우치 등을 직접 만들어 공예품을 완성시키는 과정을 통해 부모의 성취감과 자존감을 증진시키고 자녀의 양육으로 지친 부모들이 조금이나마 정서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되었다.

교육에 참석한 부모들은 수업 시간 내내 열중한 모습을 보였으며, "가족으로 공예품을 만들어 보는 것이 처음이라 어려웠지만, 정성이 들어간 작품을 완성하고 나니 매우 뿌듯하고 재미있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체육공원과 고산면 마늘 수확 돕기

완주군 체육공원과 직원들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돕기에 나섰다.

1일 완주군은 체육공원과 직원들이 지난달 29일 고산면 서봉리의 마늘 농가를 찾아 일손 돕기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체육공원과 직원 21명은 약 1200㎡의 밭에서 마늘 수확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농촌일손돕기는 농촌인력의 감소와 인건비 증가, 고령화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 현실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실시됐다.

강원양 체육공원과장은 "직원들의 도움이 지역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늘 경작자는 "농촌을 떠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고령화로 일손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도와줘 참으로 고맙다"고 인사를 전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슬기로운 00생활' 아이디어 공모

완주군, 코로나19 극복 위한 전 국민 대상 '생활 속 불편함 개선 방안' 등 4개 주제 대한 응모

완주군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활 속의 불편함 개선 방안 등 안전하고 행복한 코로나19 극복 및 슬기로운 생활 아이디어 공모에 나서 전 국민적 관심이 요청된다.

완주군은 '코로나19 세계, 슬기로운 00생활' 아이디어'를 6월 1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의 주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불편함 개선 방안 ▲행복한 일터 지키기, 비대면 산업 일자리 발굴 ▲문화·농업·먹거리·교통 등 분야별 코로나19 극복방안 및 체험 사례 ▲기타 코로나19로 불편해진 삶의 문화 혁신 사례 등이다.

생활 속 불편함 개선 방안의 경우 생활방역이나 돌봄, 음식문화, 거리두기, 비대면 행정 등이 예시였으며, 코로나19 극복 방안과 체험기로는 비대면 문화생활이나 착한소비 촉진, 디지털 서비스 등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더 나은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

최우수상 1명에게는 100만 원의 시상금이 지급되고, 우수상 2명에게는 각각 50만원이, 장려상 3명에게는 각각 30만원이, 코로나 탈출상 5명에게는 각각 지역사랑권 10만원이 지급된다. 또 10명에게는 2인 기준 청년키움식당 식사권을, 50명에게는 1일권 전북투어패스카드를 각각 지급하는 등 풍성한 시상금이 준비돼 있다.

응모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1인 2건 이내에서 완주군청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접수를 하거나 우편 접수(전북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3층 일자리경제과)도 가능하다. 우편 접수는 마감일인 6월 30일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해

신청 접수를 받는다. 완주군은 1차 자체 심사와 2차 서면 심사(70점)를 7월 17일 안에 마무리하고 군 SNS를 활용한 3차 온라인 투표(30점)를 거쳐 7월 중에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심사 기준은 실현 가능성과 창의성, 필요성, 경제성, 지속가능성 등 5가지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슬기로운 생활 아이디어를 공모해 널리 공유하고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취지"라며 "소소한 이야기에서부터 정책 기초가 될 수 있는 사업 발굴까지 다양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응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완주군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063-290-2408)으로 연락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추진

연간 최대 200만원 이내로 지원... 6월 1일부터 12월까지 김제시청 건축과로 신청

김제시가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주거 여건 조성을 위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제시는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를 작년 8월 제정·공포하여 인구정책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그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김제시는 연간 최대 200만원 이내로 지원, 지원대상은 청년(79.7.1.~99.6.30.기간중 출생한 자) 및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

내)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신혼부부(부부 모두)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19년 12월부터 '20년 5월까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금액으로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연 2회 실시할 계획이며 올해 접수는 6월 1일 부

터 12일까지 김제시청 건축과로 신청(시 홈페이지 공고내용 참고)하면 된다.

적격대상자에게는 6월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강재현 건축과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주거 여건을 조성해, 청년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을 포기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우리 농·축산물 팔아주기' 행사로 따뜻한 손길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미란)에서는 지속되는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 농산물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축산 농가를 돕기 위해 관내 공공기관이 앞장서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등 지역 농업 살리기 행사를 5월 29일, 김제시청 주차장에서 전개했다.

관내 지역 업체 및 농가들을 대상으로 판매 희망품목과 재고량 파악에 나서 삼겹살, 목살, 계란, 유제품(요거트, 치즈) 등의 6개 품목의 축산물

과 상추, 버섯, 마늘 등 5개 품목의 신선한 농산물을 선정했다.

또, 공공기관, 유관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내적인 홍보활동에 나서 약 1천개 (2천5백여만원 상당)품목을 사전 주문을 받았다.

당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하였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우리 농·축산물 팔아주기 행사를 통해 지역 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미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물 농가에 응원의 힘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하며, "지역 농·축산물 구매에 앞장서준 시민분들과 관내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최근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문화 조성'과 지역내 파급·확산을 위해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최지석)과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문화 만들기'

김제시 - 김제시공무원노동조합, 실천 협약 체결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최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문화' 조성'과 지역내 파급·확산을 위해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최지석)과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김제시와 공무원노동조합이 상호협력하여 출산 육아 지원 제도 개선과 서로 배려하는 가족친화 문화 활성화를 통해 김제시청부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문화로 만들어 저출산 문제 극복에 솔선 실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에 앞서 양측은 2회에 걸쳐 사전 간담회를 가지는 등 김제시 결혼·출산문화 장려와 임신부 및 육아 직원 배려를 위한 수법 책 발명에 힘써 왔다.

협약서 내용을 보면 김제시는 다자녀 직원 실적거점과 복지포인트 추가 지급, 지평선 오자교 프로젝트 추진, 청사내 임신부 전용 휴게공간 및 10% 할인 가맹점 사업 등 인사상, 재정상 혜택을 단겼으며, 노조측 신규사업인 전북지역 최초로 임신부 조합원에게 20만원 상당

진료비 지원과 전자파 차단 앞치마 제공, 둘째아 이상 출산을 앞둔 직원 축하 격려간담회 등을 골자로 '4대부문 12개 중점과제'를 확정하고 이날 협약식에서 양측 대표가 공동 협약서에 서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약식 바로 직후 실천과제 이행을 위한 그 첫 번째 행사를 가졌는데, 둘째아 출산을 앞둔 농업정책과 과속경직원(행정8급)이 그 주인공으로 건강한 출산을 축하하며 꽃다발과 축하용품 전달에 이어 간부공무원들의 따뜻한 덕담이 오고가는 의미있는 간담회가 있었다.

이날 박준배 시장은 "사회에 심각하게 민연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 대한민국이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며 "자치단체장으로서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우리 김제시가 앞장서서 전국 모범적인 출산인구시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저출산 문제가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학원연합회 초청 간담회 개최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1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김제시 학원연합회(회장 이혜선) 회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제시 학원연합회 이혜선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13명과 김제시장 및 시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원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현안사업 공유, 교육사업에 대한 건의사항 등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학원가의 어려운 상황들을 공유하고 위기 극복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또한 지역 교육발전에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가운데 관내 학생들에게 학습능력 및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학원비 지원사업이 제안되었다. 이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학원에 열중할 수 있도록 시와 학원이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시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혜선 회장은 "연합회와 학원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부 학생들에게 무상수업도 진행하였다. 이를 제도화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교육지원 혜택을 받고 학원연합회에서도 함께 지원하면 학생들의 학력신장 뿐만 아니라 재능기부문화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로 학원 운영에 어려움이 크지만,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한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